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0호 [부제 제25443호] 주제 105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작품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인터넷에 게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 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한 《혁명붉은기 쟁취운동에서 근면적 진취성을 일으켜》를 조선로동당 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인디언의 인디언 엔드 월드 이벤트를 통해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발행식이 9일에 진행되었다.

발행식 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발행식에는 인디언 엔드 월드 이벤트를 주관한 인디언주재외문화원 직원들의 인사말, 군중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직원들이 참가하였다. 인디언 엔드 월드 이벤트를 주관한 인디언주재외문화원 직원들의 인사말, 군중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직원들이 참가하였다. 인디언 엔드 월드 이벤트를 주관한 인디언주재외문화원 직원들의 인사말, 군중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직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가장 혁명적이며 강위력한 당

조선로동당 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조선로동당 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중략) ...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이 전람회장에 전시되어 있었다. 또한 백두산전출위원들의 불후의 고전적 작품들과 당의 명도따라 백송면치는 우리 조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 유물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람회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러시아 하마부스크변강성부 국제 및 지역협조성 부상은 조선로동당 창건 71돐을 맞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번 전람회는 당의 명도따라 백송면치는 우리 조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 유물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람회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러시아 하마부스크변강성부 국제 및 지역협조성 부상은 조선로동당 창건 71돐을 맞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번 전람회는 당의 명도따라 백송면치는 우리 조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 유물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람회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었다

백두산전출위원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전성정년전람회 석판공업부분의 일장에서 나가도록 꾸미고 손잡이 붙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명도사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전성정년전람회에 전시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평안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판공업이 기본이라고 하시

기관차의 기관사들과 로동계급은 나라의 힘도운수발전에 살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전진기 용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어나갈 불타는 일념으로 모자이크벽화 모시는 사업에 총력을 다 바치겠다. 백송면 대성협동농장에 모신 모자이크벽화 《만수무강한 혁명적 전진비례는 농장길, 조국대지를 걸고걸으며 풍요로운 가락을 연아오시며 그토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이 꽃 농장근로자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짐입니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조선의 기상을 떨친 조국의 장한 딸들을 열렬히 환영 2016년 국제축구연맹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나라 여자축구선수단 귀국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천만근민이 입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국 건설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는 격동적 시기에 우리의 여자축구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제권을 쥔 자랑한 경기성과가 전해져 온 나라가 기쁨으로 살며지고 있다. 2016년 국제축구연맹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 여자축구선수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과 아메리카지역의 강팀들을 모두 누르고 단연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요르단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수많은 축구전용기들과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조별리그전을 승리적으로 집중전승하여 결승전의 활을 머뜨리며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2015년 아시아축구연맹 16살미만 여자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우리 나라 팀이 페루를

당하였던 일본팀과 또다시 대결하게 된 우리 선수들은 우승을 노리는 상대를 불굴의 공격정신과 단결력, 대담하고 기발한 전술로 제압하고 패승을 이룩하였다.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이 거둔 자랑한 성과는 뜻깊은 올해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기 위한 투쟁에 총대걸고있는 우리 근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을 안겨주었다. 25일 2016년 국제축구연맹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나라 여자축구선수단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었다. 이날 선군조선의 영예를 빛내인 조국의 장한 딸들을 기다리는 수도 평양의 거리는 시민들의 환영열기로 세차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평양국제비행장과 편운동, 풍촌대거리, 개성문거리, 상전대거리 등에 이르는 연도는 손에

닿으며 시내로 향하였다. 새 세대 축구장자들을 맞이한 수도의 거리에는 환희가 차넘치는 가운데 편운동구역에서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을 태운 대형무개차 출발하자 거리에는 축하의 꽃물결이 설레이었다. 어머니조국의 사랑에 보답할 일념과 절절한 기대속에 승진소식을 기다리는 부모형제들과 동료들의 눈빛을 지나가나 간직하고 경기장을 달려 금메달을 쟁취한 축구선수들을 서성거리, 대성구역의 각계중 근로자들이 환영하였다. 어머니 손이라도 잡아보자고 서로서서 키를올리며 뜨겁게 환호하는 시민들의 열광마다에서 선수들은 경기대의 전기간 자기들과 함께 승리를 향해 줄기차게 달려온 정답고 고마운 마음들을 잃으며 인민들에게 답례를 보내었다. 그들은 고향집어머니가 첫질음마 배여주듯이 국제무대에 당

이것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심정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사랑과 정이 넘친 목소리로 되었다. 《장하다, 정말 통쾌하다! 참으로 불만 하하다!》,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이 제일이야!》 등 한탄의 목소리들이 연이어 연방 리저 나오는 후에 여자축구선수들이 한 꽃수레가 만경대구역, 평천구역 근로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풍물패거리로 들어섰다. 우리 선수들의 경기성과에 고무되어 일리마에서 만리마 속도장조의 불길꽃들이 200일 전후에서 위훈을 아로새겨온 자랑을 안고 연도에 달려나온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에이빙공장의 로동자들이 세계최고의 배편을 열 아시만단히 배짱과 보부물 안고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축구선수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청년대학생들과 중구역의 근로자들이 열



【조선중앙통신】

우리 원수님 령도의 손길따라 인민의 행복과 리상이 꽃피어난다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을 찾아서

인민을 위해 배푸신 은정 뜨겁게 전하는 영광의 일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품을 물여 마련해주신 귀중한 밀천물이 은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관 밀천물로 내세워야 합니다.》

당장기념일을 며칠 앞둔 지난 10월 6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자기도 조용히 귀 기울이면서 둘러보는 듯했다. 공장을 만족속에 돌아보시며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싶었던 일을 해주고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웃으며 기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얼마전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을 찾았던 우리는 이 하나의 공장에 인민의 행복을 위해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얼마나 속속들이 숨어있는가를, 그 온정에 떠날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후생에서 어떤 빛나는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가를 가슴부터이 걸잡하게 되었다.

은 공장이 크나큰 감격과 행복으로 실어넘어 잇을수 없는 그날 지나거나 될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보신 영광으로 누구나 끊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그들이 웃어주고 또 웃어지지 않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공장에 찾아오셔서 자크생산공정과 멜라민수지제품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강령적 과업들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니 그날의 영광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공정책임인공의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도모임을 따라 걸었다.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에 대하여 말할 때면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이 승연히 안겨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의 연혁 소개실부터 찾오셔서 뜨겁게 하신 말씀도 우리 장군님의 품없는 령도 사적으로 대할 뜻깊은 가르치심이 있었다.

주제 68(1979)년 12월 7일, 이날은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 창립일이였다.

공장이 빈틈없이 일떠서 우리 혁명의 만년세번인 혁명전진지와 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에게 안겨줄

의의있는 기념품들은 물론 인민생활에 걸실리 필요한 여러가지 일용품들을 생산하기까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이 깃들여있었다.

정당연구기지에서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여러가지 수지제품들을 보아주시고 그 생산을 위한 공장을 내올때 대하여 가르쳐 주신 우리 장군님,

평양시원, 창평원과 함께 주요건설 대상으로 정해주시고 공장이 일떠선 다음에는 이름을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으로 말도록 은정 어린 친필까지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지.

장군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태어난 공장이지.

연혁소개실에 전시된 자료들, 곳곳은 사적품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회는 함으로 깊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혁소개실에 정중히 모셔진 한쌍의 인민소생사적품앞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주제 73(1984)년 8월 3일 평양시공업제품전시장을 찾오셔서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선명히 떠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하시었다고,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들의 마음을 받아안은 공정일꾼들의 가슴은 이룰수 없는 격정으로 하여 세계를 북받쳐올랐다. 공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지애로운 영상을 늘 가슴에 안고

살며 일해나가고 고무격려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이 어려와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뜨겁게 어리었다는 공장, 당에서 깊이 관심하는 공장에서의 일하는 긍지와 지부심을 간직하고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지료별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을 돌아보며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갖 훌륭한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전변되고있는가를 똑똑히 알수 있었다.

어제날의 모습은 찾아볼수 없게 일신된 공장의 건물들과 생산공정들이었다.

크고작은 나라일을 돌보시는 분방하신 속에서도 공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진하며 현대적인 자크생산공정, 멜라민수지제품생산공정 등을 더 갖추어놓음으로써 기념품만이 아니라 갖가지 인민소비품들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면시업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렇듯 공장을 위해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상에 직접 나오셔서 생산현장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며 정력적인 가르치심을 주실줄 어찌 알았으랴.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자크는 20세기 인류가 창조한 10대 발명품의 하나로 일러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 자크를 인민생활향상과 떼어놓을수 없는 일용품으로 보시고 그것을 새 세기의 집건 추세에 맞게 만들도록 마음쓰시는

우리 원수님과 같이 령도자가 있었는가.

최신식설비에서 현수생산공정에 맞출려 뒤임없이 쏟아져오는 각종 규격의 수지자크, 금속자크를 보아 주시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방, 당에서 깊이 관심하는 공장에서의 일하는 긍지와 지부심을 간직하고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지료별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자크의 질,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의 하나였다.

생산현장에서 자크의 질을 가늠해 보시고 검사실에 틀리시어는 자크의 질검사를 꼼꼼히 하도록 환한하사시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꾼들에게 새겨주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그 길이 담보된 훌륭한 자크를 우리 인민들이 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품전선에서 자크의 당고리도 함께 맡겨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그 색깔과 형식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다양하게 만들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공장의 제품전선에 붙여진 우리는 저절로 감탄이 나왔다.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부속자재를 리용하여 생산한 자크들이 전신대에 똑똑이 놓여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한 자크들로 만든 그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학생의목과 학생기방, 학생신발들이 우리의뜻을 한껏 자랑하며 전시되어있었다. 우리 당의 국산화방침의 정당성을 이크지 않은 전신대에서도 느꼈수 있었다.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공장에 펼쳐진 전경을 두고 정말 마음에 든다고,

당의 국산화방침원에서 자랑찬 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은 또 하나의 자리가 있었다. 멜라민수지제품생산공정을 훌륭히 꾸려놓았으며 기념품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는 것이었다.

이 생산공정에서도 우리 인민들에게 한자라도 더 좋은것을 안겨 주시려 끝없이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의 세계가 깃들여있었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친다고 하였다.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싶었던 일을 해주고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함으로 그 말씀속에 경애하는 그이께서 지니신 인민사랑의 열도가 담겨있으며 그의 투명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다 어리어있는 것이었다.

김정숙평양직공장에 국산화된 가방용현상공정을 꾸려놓는데 이어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에 우리 식의 자크생산공정까지 꾸려놓음으로써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우리가 생산한 원료 자크를 가지고 만든 가방을 안겨줄수 있게 되었다고 그로써 기뻐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영상이 어리어온다.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으며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 인민들이 인정한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라!

지금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에 담긴 이 깊은 뜻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발구름 소리를 높여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 사랑에 떠날수록 만경대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의 오늘도 풍성히 배어난다. 더욱더 자랑스러울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공장을 나갔다.

글 편집자 림정호
사진 편집자 리명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공업부문에서는 공장들을 지식 경계시대의 본보기공장으로 꾸리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생산을 활성화하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오늘날 정공업 부문의 공장들에서는 질 좋은 우리 상품, 인민들로부터 호평받는 제품생산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어제는 금집채육인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전국적 식료품공장에서 생산한 맛 있고 영양가가 높은 식료품들과 우리가 만든 학생용기방, 교복과 학생용품이 인민들과 아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더해 주었다면 오늘날은 또 자크생산공정이 새로 일떠서고 여러가지 질 좋은 수지제품들이 생산되어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되고 있다.

자강제일주의의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오직 승리를 면치 않는 우리 당의 끝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필승의 보검으로 휘둘러왔기에 공로로써는 우리 혁명의 만년세번인 혁명전진지와 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에게 안겨줄 기념품들은 물론 국산화된 자크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일용품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훌륭하게 생산하는 자강제일주의의를 발휘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내 민족을 위하여 만반을 해치

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민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박박쳐야 합니다.》

공장에서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일떠세우던 과정은 결코 만만치않아 어려웠다.

로복과 자근, 설비문제를 비롯하여 걸린 문제가 적지 않았다. 설비들을 설치하고 조립할 때에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였다.

전진을 가로막는 예외와 난관 앞에서 당장 주저앉고싶은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았다. 당에서 온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투철한 신념이요 의지였다.

심재를 거두어 제적기의 조직 도를 우리 식으로 개조해내었다. 기술공률과 표준조작법의 요 구대로 설비들을 설치하고 시운

전도 여러차례 진행하였지만 완성된 자크레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기대와 환성이 엮어지는 눈길들이 자크생산현장으로 모여들었다. 무엇때문인가? 설비의 잘못인가, 아니면 기능이 모자라서 인가?

리무중무를 비롯한 제적공들의 실증은 실로 복잡하였다. 거두되는 실재에서 애가 라 남 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지친 몸으로 기어올라서 목숨을 걸고 하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하루빨리 자크 생산공정을 완성하여 우리 당에 충성의 보물을 올리려는 공장의 숨결에 박동을 멈추지 못하는 것만 같아 송구스러웠다. 바로 자 강제일주의의의 전진이 더디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준 사람들이 있었다.

《용무에, 질대로 맥을 놓아서 는 안됩니다. 우리는 70일전투

에 참가한 전우원들입니다. 힘비도의 영웅전사들이 목숨을 안가 리하는 전투장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주저했다면 어떻게 조국청사에 길이 남을 위훈을 세우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떠밀어낸 사람이 어찌 공장 조공담당원장 정은복동무만 아니라.

지배인 김계완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꾼들은 이들과 장조직적의 힘을 함께 우리 식의 조직 도를 완성하기 위한 전투현장에 함께 밤을 새우고 새일을 맞이하곤 하였다. 정공업성 당, 행정적일꾼들도 자주 현장에 나 오고 재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뛰고 또 뛰었다.

피라와 탐구와 노력속에 드디어 우리 식의 조직도가 완성되었고 질 좋은 자크가 팽팡 생산하는 가슴겨찬 현실이 펼쳐졌다. 다른 나라의것보다 질이 2배나 높은

우리 식의 자크레프생산으로 자크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겼다는 자강력의 감동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진리를 또 하나의 실천으로 증명할 실로 자랑찬 한 성과였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대한 규묘의 재건공사의 현대적인 자크생산공정을 일떠세우는 것과 함께 김계완공정총괄대학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멜라민수지제품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투쟁에도 힘써 벌려 귀중한 결실을 얻어냈다.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오늘날도 자강제일주의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인민들의 기쁘고 미감에 맞으며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 인민들이 인정한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삼조적의와 열정을 아낌없이 다 바쳐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현대화된 공장들의 자랑

우리 식의 자크 생산 공정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 공장에 우리의 원료, 자재에 의거한 현대적인 자크 생산공정이 새로 일떠서 인민 생활향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자크들을 계절 생산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우리 당의 국산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정공업부문의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한 성과이다.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에게 더 좋은 우리의것을 안겨 주시려 온갖 실험과 로고를 거울이 되고계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안이 송고한 후대관, 인민권을 자신들의 심장마에 새겨안은 정공업부문의 일꾼들과 공장일꾼들, 로동계급은 금속, 수지자크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새로운 자크생산공정을

짧은 기간에 완성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공정에서는 우리의 원료 인 인진사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 각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부속자재들을 가지고 년간 천수백만개에 달하는 자크들을 생산할수 있으며 모든 기어들이 PLC로 되어 여러가지 규격의 자크 제품을 마음껏 만들어내고있다.

뿐만아니라 자크레프를 짜는 첫 공정으로부터 일찍이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을 다 갖추고있어 형태와 색깔이 다양한 자크들을 인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생산보장할수 있다.

공정에서는 또한 최신식 자크생산공정과 함께 현대적인 검사설비도 갖추어

다 하여 늘어난다.

어제는 금집채육인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전국적 식료품공장에서 생산한 맛 있고 영양가가 높은 식료품들과 우리가 만든 학생용기방, 교복과 학생용품이 인민들과 아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더해 주었다면 오늘날은 또 자크생산공정이 새로 일떠서고 여러가지 질 좋은 수지제품들이 생산되어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되고 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오직 승리를 면치 않는 우리 당의 끝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필승의 보검으로 휘둘러왔기에 공로로써는 우리 혁명의 만년세번인 혁명전진지와 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에게 안겨줄 기념품들은 물론 국산화된 자크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일용품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훌륭하게 생산하는 자강제일주의의를 발휘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내 민족을 위하여 만반을 해치

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민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박박쳐야 합니다.》

공장에서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일떠세우던 과정은 결코 만만치않아 어려웠다.

로복과 자근, 설비문제를 비롯하여 걸린 문제가 적지 않았다. 설비들을 설치하고 조립할 때에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였다.

전진을 가로막는 예외와 난관 앞에서 당장 주저앉고싶은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았다. 당에서 온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투철한 신념이요 의지였다.

심재를 거두어 제적기의 조직 도를 우리 식으로 개조해내었다. 기술공률과 표준조작법의 요 구대로 설비들을 설치하고 시운

전도 여러차례 진행하였지만 완성된 자크레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기대와 환성이 엮어지는 눈길들이 자크생산현장으로 모여들었다. 무엇때문인가? 설비의 잘못인가, 아니면 기능이 모자라서 인가?

리무중무를 비롯한 제적공들의 실증은 실로 복잡하였다. 거두되는 실재에서 애가 라 남 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지친 몸으로 기어올라서 목숨을 걸고 하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하루빨리 자크 생산공정을 완성하여 우리 당에 충성의 보물을 올리려는 공장의 숨결에 박동을 멈추지 못하는 것만 같아 송구스러웠다. 바로 자 강제일주의의의 전진이 더디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준 사람들이 있었다.

《용무에, 질대로 맥을 놓아서 는 안됩니다. 우리는 70일전투

에 참가한 전우원들입니다. 힘비도의 영웅전사들이 목숨을 안가 리하는 전투장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주저했다면 어떻게 조국청사에 길이 남을 위훈을 세우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떠밀어낸 사람이 어찌 공장 조공담당원장 정은복동무만 아니라.

지배인 김계완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꾼들은 이들과 장조직적의 힘을 함께 우리 식의 조직 도를 완성하기 위한 전투현장에 함께 밤을 새우고 새일을 맞이하곤 하였다. 정공업성 당, 행정적일꾼들도 자주 현장에 나 오고 재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뛰고 또 뛰었다.

피라와 탐구와 노력속에 드디어 우리 식의 조직도가 완성되었고 질 좋은 자크가 팽팡 생산하는 가슴겨찬 현실이 펼쳐졌다. 다른 나라의것보다 질이 2배나 높은

보기에 쓰기에 좋은 멜라민수지제품

공정에 멜라민수지제품 생산공정이 일떠서 인민소비 품 가지수가 늘어났다. 멜라민수지제품이 인체에 해를 주지 않고 사용에서 편리한 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도 수요가 높은 이 제품은 그릇류, 사무용품, 세면도구류, 공예품 등 다양한 용도에 리용되고있다.

공정에서는 원료를 먼저 고수준에서 정제하여 고수준으로 정제하여 깨끗한 시간에 가지가지의 제품

을 만들고있는 현대 생산공정은 결코 작지 않다.

공정일꾼들과 로동계급은 방공, 국고, 점식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용품을 짜고 정밀, 조립을 비롯한 멜라민수지제품들을 리용자들이 보기에 좋고 쓰기에 편리하게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세파세로운 산업기술도안을 적극 받아들이고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추어놓아

멜라민수지제품 생산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떠날수록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사업은 혁명전진지, 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을 위한 기념품들과 갖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마음껏 만들어 생산보장하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또 하나의 일용품생산기지도 전변되고 있다.

전 해 열

생명으로 들어온 자강제일주의의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위전의 결실로 태어난 인민소비품생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우리 당에 기쁨을 드린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에 종업원들이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일떠세우던 날에 다시금 심장같이 걸잡한 절리가 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오직 승리를 면치 않는 우리 당의 끝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필승의 보검으로 휘둘러왔기에 공로로써는 우리 혁명의 만년세번인 혁명전진지와 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에게 안겨줄 기념품들은 물론 국산화된 자크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일용품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훌륭하게 생산하는 자강제일주의의를 발휘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내 민족을 위하여 만반을 해치

현지보도

우리의 눈부신 미래를 본다

미지 누에가 실을 뿜듯이 단번에 10개의 자크레프가 줄줄이 흘러나오는 제적기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오늘날의 중산층에서 만리마수로 영예 떨치려는 기대품들의 양상된 정신력의 분출이듯 만제들과 완성품들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성취, 봉조, 질단기를 비롯한 최신식설비들이 만가품을 길어냈다.

자크 생산공정을 보면물수록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비약하여 전진하는 내 조국의 승적이 맥박처럼 가슴 호호때인다.

공정에서 온 나라 학생들의 교복과 가방생산에 쓸 자크를 부와 많다면 생산할수 있다니 얼마나 자랑찬 현실인가.

하기에 공장을 찾오시었던 우리 원수님께서 자크생산공정에 대한대하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생산한 원료 자크를 가지고 만든 가방을 안겨줄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자크를 찾오시어 그 무엇이든 보시어도 제일전투 우리 아이들, 우리 인민들을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에는 잊어도 끊어 없는 우리 원수님의 하늘같은 후대

《생산된 자크들을 보시어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싶었던 일을 해주고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못내 만족하시던 우리 원수님께서 우리가 만든 자크를 한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아이들과 학생들을 보시려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너서적기들의 심정이라고만 하라. 우리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사는 천만민들의 심정의 고백인 것이다.

그렇다. 우리 원수님 기뻐하시던 온 나라가 환해지는 우리 조국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과들이 늘어날수록 오늘날보다 더 멋지고 눈부신 우리의 미래가 더 빨리 마음 오는 것이다.

김 국 현



멜라민수지제품 생산 공정 자크 생산 공정 과학 기술 보급실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수령의 유훈을 기치로 틀어쥐면 어디서나 만리마를 탈수 있다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결합한 공격정신으로 부강번영의 선진상을 높이 쏘아 올리는 200일전투에서 앞장 선 전형단위들의 영예를 지니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오는 자랑을 펼치었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전형단위, 이 중저는 부흥과 더불어 이들은 수실년전투소 우리 나라 선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연합기업소를 부어주시면서 덕천지구의 판광들이 선진공업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꽃을 들고나갈때 대하여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자를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

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헌신로 꽃피워야 한다.》

나라의 서부지구 판광들중에서 개발역사가 비교적 오래고 채굴조건도 다른 판광들에 비해 불리하여 총지침 추적이 어렵다고 하던 이 연합기업소가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활약을 펼쳤고 최근년간 이어져오지 못한 선진생산기록을 장행 돌파하여 전국의 앞장에 당당히 섰는 것만으로도 만리마속도 창조대진이 낮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우리는 수령의 유훈을 결사관철의 기치로 틀어쥐고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놀라운 성과를 안아온 이 일꾼들의 전위적인 사업정신을 통하여 당정책의 운명은 전적으로 일꾼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현수님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다시금 뼈에 새기게 된다.

관에서 혁신자들을 소개한 소모작품들을 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성이 주는 속보에는 소박하면서도 진실감을 주는 작품들이 수실장이나 나뉘어있었다. 판광일꾼들을 만나보고 올라온 그는 즉시 협의회를 열고 소모작품을 통한 혁신자소개사업을 일반화할때 대한 문제를 상정시켰다.

물론 혁신자작품을 내놓는것도 좋다. 그러나 순간에 걸린 사진보다는 품을 들여 그려는 소묘가 더 감동적이겠지다. 처음에는 좀 서툴수 있어도 생활을 보다 진실하고 다양하게 담을수 있어 좋고 더 우기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따뜻한 손으로 정성을 담아 그린 그림에 혁신자 아우터라 쓰고 칩 수표까지 해놓으니 그것이아말로 대중에 주는 최상의 평가가 아니겠는가. 아마 그 주인공들은 소모작품을 보고 보면서 대중의 평가에 보답하기 위해 더 성실히 일하고 배가의 힘을 바칠것이다. 판광들마다 적극 장려하고 연합기업소적인 소모작품전시회도 조직하자.

이렇게 되어 모든 판광들과 단위들마다 혁신자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연합기업소가 조직되어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사상적인 열풍은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 도식주의, 뒷마기를 극복하고 생산자 대중의 충실성을 최대로 발휘시키는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로 이어져 많은 일꾼들의 사업욕, 일본새를 변화시켰다.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말이나 글만으로는 대중의 심장을 울릴수 없다는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이며 자기 살점을 깎아서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와 단위를 위한 사업은 사상사업과 함께 가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말이나 글만으로는 대중의 심장을 울릴수 없다는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이며 자기 살점을 깎아서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와 단위를 위한 사업은 사상사업과 함께 가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결합한 공격정신으로 부강번영의 선진상을 높이 쏘아 올리는 200일전투에서 앞장 선 전형단위들의 영예를 지니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오는 자랑을 펼치었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전형단위, 이 중저는 부흥과 더불어 이들은 수실년전투소 우리 나라 선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연합기업소를 부어주시면서 덕천지구의 판광들이 선진공업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꽃을 들고나갈때 대하여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자를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

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헌신로 꽃피워야 한다.》

나라의 서부지구 판광들중에서 개발역사가 비교적 오래고 채굴조건도 다른 판광들에 비해 불리하여 총지침 추적이 어렵다고 하던 이 연합기업소가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활약을 펼쳤고 최근년간 이어져오지 못한 선진생산기록을 장행 돌파하여 전국의 앞장에 당당히 섰는 것만으로도 만리마속도 창조대진이 낮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우리는 수령의 유훈을 결사관철의 기치로 틀어쥐고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놀라운 성과를 안아온 이 일꾼들의 전위적인 사업정신을 통하여 당정책의 운명은 전적으로 일꾼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현수님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다시금 뼈에 새기게 된다.

관에서 혁신자들을 소개한 소모작품들을 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성이 주는 속보에는 소박하면서도 진실감을 주는 작품들이 수실장이나 나뉘어있었다. 판광일꾼들을 만나보고 올라온 그는 즉시 협의회를 열고 소모작품을 통한 혁신자소개사업을 일반화할때 대한 문제를 상정시켰다.

물론 혁신자작품을 내놓는것도 좋다. 그러나 순간에 걸린 사진보다는 품을 들여 그려는 소묘가 더 감동적이겠지다. 처음에는 좀 서툴수 있어도 생활을 보다 진실하고 다양하게 담을수 있어 좋고 더 우기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따뜻한 손으로 정성을 담아 그린 그림에 혁신자 아우터라 쓰고 칩 수표까지 해놓으니 그것이아말로 대중에 주는 최상의 평가가 아니겠는가. 아마 그 주인공들은 소모작품을 보고 보면서 대중의 평가에 보답하기 위해 더 성실히 일하고 배가의 힘을 바칠것이다. 판광들마다 적극 장려하고 연합기업소적인 소모작품전시회도 조직하자.

이렇게 되어 모든 판광들과 단위들마다 혁신자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연합기업소가 조직되어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사상적인 열풍은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 도식주의, 뒷마기를 극복하고 생산자 대중의 충실성을 최대로 발휘시키는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로 이어져 많은 일꾼들의 사업욕, 일본새를 변화시켰다.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말이나 글만으로는 대중의 심장을 울릴수 없다는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이며 자기 살점을 깎아서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와 단위를 위한 사업은 사상사업과 함께 가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말이나 글만으로는 대중의 심장을 울릴수 없다는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이며 자기 살점을 깎아서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와 단위를 위한 사업은 사상사업과 함께 가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마지막 한사람의 심장까지 뜨겁게 울리자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닌 단위들은 실천에서 검증된 하나의 공통된 대안이 있다. 오늘날 만리마속도 창조대진에서도 최강의 무기는 대중의 정신력이다. 우리는 우리 당정책이 천년만 지당하며 참으로 위대하다는것이다.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 기업소는 나라의 골지의 대동맥이었던 북방화력발전연합기업소 선진단위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단위이다. 나라의 전력사정이 긴장해질 때마다 의례히 제언언 나하리 끝없는 북방과 력적인 연합기업소앞에는 때때로 과중한 생산과제가 닥쳐지곤 한다. 여기에 북방이 나라의 생명선이라면 우리 덕천은 그 생명선을 지켜선 전초선이라고 위하는것이 입버릇처럼 굳어진 이 일꾼들의 일꾼이다.

우리는 나라가 만리마속도 창조대진에 진입한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연합기업소에서 선진단위로서 생산장려와 할 일만큼 선진생산기록도 7.0일전투때에 비해 또다시 높여왔다.

원 조전에서 새로운 생산과제를 과연 돌파할수 있었는가 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울려나왔다. 그렇지만도 했다. 7.0일전투기간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장기로 돌린다고 완강한 생산목표를 넘겨 전투목표를 완수한 형태에서 그보다 더 높아진 생산과제는 전력과 설비, 자재로부터 제정당대비에 이르기까지 어느모로 보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과업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연합기업소 일꾼들의 200일전투조직사업에서 공격정신이 주된 것은 바로 앞의 이력을 조전에서 전수수령의 모범이랑, 판전적고비를 명백히 찾아주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했다는것이다.

200일전투의 시작에 앞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연합기업소 당책임일꾼인 리장길 등무가 한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왔다.

《당에서 강조하는바이지런데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엔 정명 못할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일전투의 총적방향을 어디에 두었는가, 물론 높아진 생산목표도 반드시 걸림해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나는 이번 200일전투과제가 우리 연합기업소가 수실년이 지나도록 진행하지 못한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기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에 대해 하시는 말을 새기겠습니다. 혁신자들의 관철해야 선진공업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꽃을 들고나갈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는것, 이것이 이번 전투에서 우리가 정명하여야 할 목표입니다.》

협의회의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참가자들이 모두 생산목표를 수행할수 있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는가 하는 심각한 물음에 자신들을 세우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수실년전 나라의 선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연합기업소를 부어주시고 벌써 어머니수령님께서 정지사업에 앞장서 판광들의 생산의욕을 불러일으키며 대하시어준 공로를 선진생산에 확고히 실현시킬때 대한 문제, 부흥기지와 후방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보장사업을 잘할때 대한 문제가 이르기까지 전국의 분포기지를 당중앙위원회는 귀중한 지침을 마련해주시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결합한 공격정신으로 부강번영의 선진상을 높이 쏘아 올리는 200일전투에서 앞장 선 전형단위들의 영예를 지니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오는 자랑을 펼치었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전형단위, 이 중저는 부흥과 더불어 이들은 수실년전투소 우리 나라 선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연합기업소를 부어주시면서 덕천지구의 판광들이 선진공업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꽃을 들고나갈때 대하여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자를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

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헌신로 꽃피워야 한다.》

나라의 서부지구 판광들중에서 개발역사가 비교적 오래고 채굴조건도 다른 판광들에 비해 불리하여 총지침 추적이 어렵다고 하던 이 연합기업소가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활약을 펼쳤고 최근년간 이어져오지 못한 선진생산기록을 장행 돌파하여 전국의 앞장에 당당히 섰는 것만으로도 만리마속도 창조대진이 낮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우리는 수령의 유훈을 결사관철의 기치로 틀어쥐고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놀라운 성과를 안아온 이 일꾼들의 전위적인 사업정신을 통하여 당정책의 운명은 전적으로 일꾼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현수님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다시금 뼈에 새기게 된다.

관에서 혁신자들을 소개한 소모작품들을 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성이 주는 속보에는 소박하면서도 진실감을 주는 작품들이 수실장이나 나뉘어있었다. 판광일꾼들을 만나보고 올라온 그는 즉시 협의회를 열고 소모작품을 통한 혁신자소개사업을 일반화할때 대한 문제를 상정시켰다.

물론 혁신자작품을 내놓는것도 좋다. 그러나 순간에 걸린 사진보다는 품을 들여 그려는 소묘가 더 감동적이겠지다. 처음에는 좀 서툴수 있어도 생활을 보다 진실하고 다양하게 담을수 있어 좋고 더 우기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따뜻한 손으로 정성을 담아 그린 그림에 혁신자 아우터라 쓰고 칩 수표까지 해놓으니 그것이아말로 대중에 주는 최상의 평가가 아니겠는가. 아마 그 주인공들은 소모작품을 보고 보면서 대중의 평가에 보답하기 위해 더 성실히 일하고 배가의 힘을 바칠것이다. 판광들마다 적극 장려하고 연합기업소적인 소모작품전시회도 조직하자.

이렇게 되어 모든 판광들과 단위들마다 혁신자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연합기업소가 조직되어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사상적인 열풍은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 도식주의, 뒷마기를 극복하고 생산자 대중의 충실성을 최대로 발휘시키는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로 이어져 많은 일꾼들의 사업욕, 일본새를 변화시켰다.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말이나 글만으로는 대중의 심장을 울릴수 없다는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이며 자기 살점을 깎아서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와 단위를 위한 사업은 사상사업과 함께 가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말이나 글만으로는 대중의 심장을 울릴수 없다는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이며 자기 살점을 깎아서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와 단위를 위한 사업은 사상사업과 함께 가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결합한 공격정신으로 부강번영의 선진상을 높이 쏘아 올리는 200일전투에서 앞장 선 전형단위들의 영예를 지니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오는 자랑을 펼치었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전형단위, 이 중저는 부흥과 더불어 이들은 수실년전투소 우리 나라 선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연합기업소를 부어주시면서 덕천지구의 판광들이 선진공업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꽃을 들고나갈때 대하여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자를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

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헌신로 꽃피워야 한다.》

나라의 서부지구 판광들중에서 개발역사가 비교적 오래고 채굴조건도 다른 판광들에 비해 불리하여 총지침 추적이 어렵다고 하던 이 연합기업소가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활약을 펼쳤고 최근년간 이어져오지 못한 선진생산기록을 장행 돌파하여 전국의 앞장에 당당히 섰는 것만으로도 만리마속도 창조대진이 낮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우리는 수령의 유훈을 결사관철의 기치로 틀어쥐고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놀라운 성과를 안아온 이 일꾼들의 전위적인 사업정신을 통하여 당정책의 운명은 전적으로 일꾼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현수님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다시금 뼈에 새기게 된다.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결합한 공격정신으로 부강번영의 선진상을 높이 쏘아 올리는 200일전투에서 앞장 선 전형단위들의 영예를 지니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오는 자랑을 펼치었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전형단위, 이 중저는 부흥과 더불어 이들은 수실년전투소 우리 나라 선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연합기업소를 부어주시면서 덕천지구의 판광들이 선진공업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꽃을 들고나갈때 대하여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자를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

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헌신로 꽃피워야 한다.》

나라의 서부지구 판광들중에서 개발역사가 비교적 오래고 채굴조건도 다른 판광들에 비해 불리하여 총지침 추적이 어렵다고 하던 이 연합기업소가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활약을 펼쳤고 최근년간 이어져오지 못한 선진생산기록을 장행 돌파하여 전국의 앞장에 당당히 섰는 것만으로도 만리마속도 창조대진이 낮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우리는 수령의 유훈을 결사관철의 기치로 틀어쥐고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놀라운 성과를 안아온 이 일꾼들의 전위적인 사업정신을 통하여 당정책의 운명은 전적으로 일꾼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현수님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다시금 뼈에 새기게 된다.

관에서 혁신자들을 소개한 소모작품들을 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성이 주는 속보에는 소박하면서도 진실감을 주는 작품들이 수실장이나 나뉘어있었다. 판광일꾼들을 만나보고 올라온 그는 즉시 협의회를 열고 소모작품을 통한 혁신자소개사업을 일반화할때 대한 문제를 상정시켰다.

물론 혁신자작품을 내놓는것도 좋다. 그러나 순간에 걸린 사진보다는 품을 들여 그려는 소묘가 더 감동적이겠지다. 처음에는 좀 서툴수 있어도 생활을 보다 진실하고 다양하게 담을수 있어 좋고 더 우기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따뜻한 손으로 정성을 담아 그린 그림에 혁신자 아우터라 쓰고 칩 수표까지 해놓으니 그것이아말로 대중에 주는 최상의 평가가 아니겠는가. 아마 그 주인공들은 소모작품을 보고 보면서 대중의 평가에 보답하기 위해 더 성실히 일하고 배가의 힘을 바칠것이다. 판광들마다 적극 장려하고 연합기업소적인 소모작품전시회도 조직하자.

이렇게 되어 모든 판광들과 단위들마다 혁신자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연합기업소가 조직되어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사상적인 열풍은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 도식주의, 뒷마기를 극복하고 생산자 대중의 충실성을 최대로 발휘시키는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로 이어져 많은 일꾼들의 사업욕, 일본새를 변화시켰다.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말이나 글만으로는 대중의 심장을 울릴수 없다는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이며 자기 살점을 깎아서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와 단위를 위한 사업은 사상사업과 함께 가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말이나 글만으로는 대중의 심장을 울릴수 없다는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이며 자기 살점을 깎아서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와 단위를 위한 사업은 사상사업과 함께 가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결합한 공격정신으로 부강번영의 선진상을 높이 쏘아 올리는 200일전투에서 앞장 선 전형단위들의 영예를 지니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오는 자랑을 펼치었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전형단위, 이 중저는 부흥과 더불어 이들은 수실년전투소 우리 나라 선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연합기업소를 부어주시면서 덕천지구의 판광들이 선진공업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꽃을 들고나갈때 대하여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자를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

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헌신로 꽃피워야 한다.》

나라의 서부지구 판광들중에서 개발역사가 비교적 오래고 채굴조건도 다른 판광들에 비해 불리하여 총지침 추적이 어렵다고 하던 이 연합기업소가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활약을 펼쳤고 최근년간 이어져오지 못한 선진생산기록을 장행 돌파하여 전국의 앞장에 당당히 섰는 것만으로도 만리마속도 창조대진이 낮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우리는 수령의 유훈을 결사관철의 기치로 틀어쥐고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놀라운 성과를 안아온 이 일꾼들의 전위적인 사업정신을 통하여 당정책의 운명은 전적으로 일꾼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현수님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다시금 뼈에 새기게 된다.

관에서 혁신자들을 소개한 소모작품들을 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성이 주는 속보에는 소박하면서도 진실감을 주는 작품들이 수실장이나 나뉘어있었다. 판광일꾼들을 만나보고 올라온 그는 즉시 협의회를 열고 소모작품을 통한 혁신자소개사업을 일반화할때 대한 문제를 상정시켰다.

물론 혁신자작품을 내놓는것도 좋다. 그러나 순간에 걸린 사진보다는 품을 들여 그려는 소묘가 더 감동적이겠지다. 처음에는 좀 서툴수 있어도 생활을 보다 진실하고 다양하게 담을수 있어 좋고 더 우기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따뜻한 손으로 정성을 담아 그린 그림에 혁신자 아우터라 쓰고 칩 수표까지 해놓으니 그것이아말로 대중에 주는 최상의 평가가 아니겠는가. 아마 그 주인공들은 소모작품을 보고 보면서 대중의 평가에 보답하기 위해 더 성실히 일하고 배가의 힘을 바칠것이다. 판광들마다 적극 장려하고 연합기업소적인 소모작품전시회도 조직하자.

이렇게 되어 모든 판광들과 단위들마다 혁신자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연합기업소가 조직되어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사상적인 열풍은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 도식주의, 뒷마기를 극복하고 생산자 대중의 충실성을 최대로 발휘시키는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로 이어져 많은 일꾼들의 사업욕, 일본새를 변화시켰다.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말이나 글만으로는 대중의 심장을 울릴수 없다는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이며 자기 살점을 깎아서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와 단위를 위한 사업은 사상사업과 함께 가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말이나 글만으로는 대중의 심장을 울릴수 없다는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이며 자기 살점을 깎아서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와 단위를 위한 사업은 사상사업과 함께 가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목표가 크고 실천이 완강해야 자강력이 커진다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를 통하여 자력자강의 정신이 배태되고 자강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진것이 연합기업소가 거둔 가장 큰 성과라고 할수 있다. 생산과제가 제기되면 로력파동, 자재파동, 조진과 장비의 하인 일꾼들의 눈에서도 석탄산의 눈이차 자강력의 눈이차 석탄산의 눈이차 울려나오고있다.

수령의 유훈관철을 기치로 틀어쥐고 벌려온 거창한 만리마속도 창조대진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이 세운 자강력제일주의의 생활력을 실천으로 결합한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판광들모두가 자강력의 소유자들로 성장하였다. 바로 이것이 수실년전투의 선진성이 비할수 없는 가장 큰 성과이며 재부이다.

7.0일전투에 들어서던 때 연합기업소에서 시금치 해해야 할 것만 고리외의 하나로 연합기업소가 심각하게 성장되었다. 대부분의 생산과제가 시금치에 연계되어있고 온안거리가 먼 조건에서 판광물체를 풀지 못하고서는 전투목표를 충족할수 없었다. 라산 해보나 굉장한 공한 물을 넘기자고 해도 200~300대정도의 한차가 더 필요했다.

연합기업소 책임일꾼들은 심장을 뜨겁게 흔들어 판광물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머니수령님의 은총에 마련된 정밀기계공장을 유훈관철의 앞장에 내세울 정성을 굳혔다. 이렇게 되어 200~300대가 아니라 단번에 500대정 전투기간에 제작할 과제가 판광기계공장에 걸렸다.

책임일꾼들의 결심에 일확성이 크고 손학이 새기고 소문난 판광기계공장 지어진 데 처음에는 어지간히 늦었다. 두가지 현행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결합한 공격정신으로 부강번영의 선진상을 높이 쏘아 올리는 200일전투에서 앞장 선 전형단위들의 영예를 지니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오는 자랑을 펼치었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전형단위, 이 중저는 부흥과 더불어 이들은 수실년전투소 우리 나라 선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연합기업소를 부어주시면서 덕천지구의 판광들이 선진공업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꽃을 들고나갈때 대하여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자를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

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헌신로 꽃피워야 한다.》

나라의 서부지구 판광들중에서 개발역사가 비교적 오래고 채굴조건도 다른 판광들에 비해 불리하여 총지침 추적이 어렵다고 하던 이 연합기업소가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활약을 펼쳤고 최근년간 이어져오지 못한 선진생산기록을 장행 돌파하여 전국의 앞장에 당당히 섰는 것만으로도 만리마속도 창조대진이 낮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우리는 수령의 유훈을 결사관철의 기치로 틀어쥐고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놀라운 성과를 안아온 이 일꾼들의 전위적인 사업정신을 통하여 당정책의 운명은 전적으로 일꾼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현수님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다시금 뼈에 새기게 된다.

관에서 혁신자들을 소개한 소모작품들을 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성이 주는 속보에는 소박하면서도 진실감을 주는 작품들이 수실장이나 나뉘어있었다. 판광일꾼들을 만나보고 올라온 그는 즉시 협의회를 열고 소모작품을 통한 혁신자소개사업을 일반화할때 대한 문제를 상정시켰다.

물론 혁신자작품을 내놓는것도 좋다. 그러나 순간에 걸린 사진보다는 품을 들여 그려는 소묘가 더 감동적이겠지다. 처음에는 좀 서툴수 있어도 생활을 보다 진실하고 다양하게 담을수 있어 좋고 더 우기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따뜻한 손으로 정성을 담아 그린 그림에 혁신자 아우터라 쓰고 칩 수표까지 해놓으니 그것이아말로 대중에 주는 최상의 평가가 아니겠는가. 아마 그 주인공들은 소모작품을 보고 보면서 대중의 평가에 보답하기 위해 더 성실히 일하고 배가의 힘을 바칠것이다. 판광들마다 적극 장려하고 연합기업소적인 소모작품전시회도 조직하자.

이렇게 되어 모든 판광들과 단위들마다 혁신자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연합기업소가 조직되어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사상적인 열풍은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 도식주의, 뒷마기를 극복하고 생산자 대중의 충실성을 최대로 발휘시키는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로 이어져 많은 일꾼들의 사업욕, 일본새를 변화시켰다.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말이나 글만으로는 대중의 심장을 울릴수 없다는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이며 자기 살점을 깎아서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와 단위를 위한 사업은 사상사업과 함께 가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말이나 글만으로는 대중의 심장을 울릴수 없다는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이며 자기 살점을 깎아서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와 단위를 위한 사업은 사상사업과 함께 가야 한다는것, 연합기업소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지적인 문제로 보고 중시했어 있다.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결합한 공격정신으로 부강번영의 선진상을 높이 쏘아 올리는 200일전투에서 앞장 선 전형단위들의 영예를 지니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오는 자랑을 펼치었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전형단위, 이 중저는 부흥과 더불어 이들은 수실년전투소 우리 나라 선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연합기업소를 부어주시면서 덕천지구의 판광들이 선진공업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꽃을 들고나갈때 대하여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자를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

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헌신로 꽃피워야 한다.》

나라의 서부지구 판광들중에서 개발역사가 비교적 오래고 채굴조건도 다른 판광들에 비해 불리하여 총지침 추적이 어렵다고 하던 이 연합기업소가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활약을 펼쳤고 최근년간 이어져오지 못한 선진생산기록을 장행 돌파하여 전국의 앞장에 당당히 섰는 것만으로도 만리마속도 창조대진이 낮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우리는 수령의 유훈을 결사관철의 기치로 틀어쥐고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놀라운 성과를 안아온 이 일꾼들의 전위적인 사업정신을 통하여 당정책의 운명은 전적으로 일꾼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현수님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다시금 뼈에 새기게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자

류경안과중합병원 종업원들의 령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시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류경안과중합병원 종업원들의 령기모임이 25일에 진행되었다.

김봉석 평양시당위원회 부위원장, 병원일꾼들,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류경안위원장 비명경의 보고에 이어 1부원장 류은희, 과장들인 김민석, 한훈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집일정체와 혁명적정체와 인민중시사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강령에 대한 김정은동지께서 류경안과중합병원정체설을 발표하시고 진실현황에까지 나오시어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라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새로 건설된 병원을 찾으시어 외래병과 입원실병동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현수님께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인민의 병원에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좋아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어 빈대 기베하십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현시지도는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 제7차대회가 결한 웅대한 실지로 따라 사회주의분명정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도록 고무추동할 뜻깊은 계기로 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예방의 확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시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도 진정성의 정당성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는데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의뢰일꾼들과 봉사자들의 책임성과 실무적정체를 부단히 개선하고 환자치료에 정성을 다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며 안경봉사의 과학성과 진정성, 신속성을 보장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의 은정이 뜨겁게 어려있는 의로설비와 비품들을

수령의 유훈을 기치로 틀어쥐면 어디서나 만리마를 탈수 있다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결합한 공격정신으로 부강번영의 선진상을 높이 쏘아 올리는 200일전투에서 앞장 선 전형단위들의 영예를 지니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오는 자랑을 펼치었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전형단위, 이 중저는 부흥과 더불어 이들은 수실년전투소 우리 나라 선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연합기업소를 부어주시면서 덕천지구의 판광들이 선진공업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꽃을 들고나갈때 대하여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자를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

목표가 크고 실천이 완강해야 자강력이 커진다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를 통하여 자력자강의 정신이 배태되고 자강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진것이 연합기업소가 거둔 가장 큰 성과라고 할수 있다. 생산과제가 제기되면 로력파동, 자재파동, 조진과 장비의 하인 일꾼들의 눈에서도 석탄산의 눈이차 자강력의 눈이차 석탄산의 눈이차 울려나오고있다.

수령의 유훈관철을 기치로 틀어쥐고 벌려온 거창한 만리마속도 창조대진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이 세운 자강력제일주의의 생활력을 실천으로 결합한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판광들모두가 자강력의 소유자들로 성장하였다. 바로 이것이 수실년전투의 선진성이 비할수 없는 가장 큰 성과이며 재부이다.

7.0일전투에 들어서던 때 연합기업소에서 시금치 해해야 할 것만 고리외의 하나로 연합기업소가 심각하게 성장되었다. 대부분의 생산과제가 시금치에 연계되어있고 온안거리가 먼 조건에서 판광물체를 풀지 못하고서는 전투목표를 충족할수 없었다. 라산 해보나 굉장한 공한 물을 넘기자고 해도 200~300대정도의 한차가 더 필요했다.

연합기업소 책임일꾼들은 심장을 뜨겁게 흔들어 판광물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머니수령님의 은총에 마련된 정밀기계공장을 유훈관철의 앞장에 내세울 정성을 굳혔다. 이렇게 되어 200~300대가 아니라 단번에 500대정 전투기간에 제작할 과제가 판광기계공장에 걸렸다.

책임일꾼들의 결심에 일확성이 크고 손학이 새기고 소문난 판광기계공장 지어진 데 처음에는 어지간히 늦었다. 두가지 현행

수령의 유훈을 기치로 틀어쥐면 어디서나 만리마를 탈수 있다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결합한 공격정신으로 부강번영의 선진상을 높이 쏘아 올리는 200일전투에서 앞장 선 전형단위들의 영예를 지니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오는 자랑을 펼치었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전형단위, 이 중저는 부흥과 더불어 이들은 수실년전투소 우리 나라 선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연합기업소를 부어주시면서 덕천지구의 판광들이 선진공업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꽃을 들고나갈때 대하여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자를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

수령의 유훈을 기치로 틀어쥐면 어디서나 만리마를 탈수 있다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결합한 공격정신으로 부강번영의 선진상을 높이 쏘아 올리는 200일전투에서 앞장 선 전형단위들의 영예를 지니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오는 자랑을 펼치었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전형단위, 이 중저는 부흥과 더불어 이들은 수실년전투소 우리 나라 선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연합기업소를 부어주시면서 덕천지구의 판광들이 선진공업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꽃을 들고나갈때 대하여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자를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

수령의 유훈을 기치로 틀어쥐면 어디서나 만리마를 탈수 있다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결합한 공격정신으로 부강번영의 선진상을 높이 쏘아 올리는 200일전투에서 앞장 선 전형단위들의 영예를 지니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오는 자랑을 펼치었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전형단위, 이 중저는 부흥과 더불어 이들은 수실년전투소 우리 나라 선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연합기업소를 부어주시면서 덕천지구의 판광들이 선진공업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꽃을 들고나갈때 대하여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자를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

수령의 유훈을 기치로 틀어쥐면 어디서나 만리마를 탈수 있다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결합한 공격정신으로 부강번영의 선진상을 높이 쏘아 올리는 200일전투에서 앞장 선 전형단위들의 영예를 지니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오는 자랑을 펼치었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전형단위, 이 중저는 부흥과 더불어 이들은 수실년전투소 우리 나라 선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연합기업소를 부어주시면서 덕천지구의 판광들이 선진공업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꽃을 들고나갈때 대하여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자를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

수령의 유훈을 기치로 틀어쥐면 어디서나 만리마를 탈수 있다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결합한 공격정신으로 부강번영의 선진상을 높이 쏘아 올리는 200일전투에서 앞장 선 전형단위들의 영예를 지니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오는 자랑을 펼치었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전형단위, 이 중저는 부흥과 더불어 이들은 수실년전투소 우리 나라 선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연합기업소를 부어주시면서 덕천지구의 판광들이 선진공업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꽃을 들고나갈때 대하여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